

정보 TIP

100메가 메가팩스 요금 10% ↓

KT가 100메가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을 10% 내렸다.

KT는 3일 초고속인터넷 100메가 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FTTH(광가입자망) 기반의 메가팩스 상품인 스페셜 요금을 기존 4만원에서 3만6천원으로 인하했다.

KTF, 로밍 할인 요금제 출시

KTF는 설 연휴를 앞두고 쇼(SHOW) 글로벌 자동로밍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쇼 로밍 알뜰 요금'과 '쇼 로밍 10개국 할인요금'을 4일 출시했다.

'쇼 로밍 알뜰요금'은 1회 5천원을 내면 가입일 기준으로 30일동안 로밍 문자메시지(SMS) 25건을 이용할 수 있고 초과 건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무료체침 소액결제 조심"

통신위 민원예보 발령

통신위원회는 최근 무선인터넷·초고속인터넷 무료체침 행사로 인한 유인한 뒤 나중에 휴대전화나 ARS로 소액결제를 청구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한 후 유료결제로 전환해 피해를 유발하거나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 해 소액결제를 청구하고 ▲무료 체험이나 무료이벤트 후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해 결제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통신위는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초고속인터넷·무선인터넷 업체들의 이같은 불법 마케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무료'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설에도 4천700만명이 고향을 찾아 이동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향가는 길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막상 뚫릴 것 같지 않은 고속도로와 씨름하다 보면 고향길이 꽤 버거워진다. 이 때 휴대폰을 잘 이용하면 고통을 덜 수 있다.

막힌 길 뚫어주고 기름값 깎아주고 지루할 땐 게임 즐기고

고향길 휴대폰을 즐겨라

설 명절 이동통신사 서비스

SK텔레콤

네이트 교통정보서비스

- 4대 고속도로 연계된 우회국도의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우회국도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고속도로 빠른길 서비스'

KTF

길 도우미 서비스

- 교통수단별 교통수단 및 음성·지도안내
일반휴대전화로도 이용가능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 웹사이트와 휴대전화에서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구입가능
롯데마트·이마트에서도 사용가능

LG 텔레콤

주요할인 프로그램

- GS칼텍스 주유소·LPG 충전소에서 8 당 최대 500원까지 통화요금에서 할인가능
최대 한달 2만5000원, 1년 30만원까지 할인

모바일 E타겟 서비스

- 휴대전화로 열차편 조회·구매 가능
모바일 KTX접을 발급 받아야 함

(자료:이통3사)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휴대폰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막막한 고속도로를 피할 수 있고 지루함을 달랠 수 있다. (KTF 제공)

▲길찾기 완전정복 '타맵'(T Map)=이통3사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타맵 내비게이션'(구 네이트드라이브)은 귀찮길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정체나 체증이 심한 도로를 피해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다.

SKT 'NATE 연예정보'는 다양한 연예계 소식뿐 아니라 스타 화보, 할리우드 스타 핫 이슈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심함을 달래준다.

LG텔레콤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서비스인 '패스온'을 내놔다. 주행 중에 통행료가 자동정산돼 정차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어 그만큼 통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루할 땐 쇼를 하라 'SHOW'=모바일 게임, TV시청 등 무선인터넷을 앞세운 다양한 콘텐츠는 고향길의 좋은 동반자다.

KTF는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70~80년대 추억의 만화를 제공한다. 또 설연휴 동안 '정통맛고 2008', '농3', '2008 프루야구' 등의 인기 모바일게임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LGT의 'TV모아'를 이용하면 각종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 시청할 수 있다.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와 NG 장면까지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급한 업무 처리는 'MyPC'로=컴퓨터가 없는 시골에서 업무상 중요한 메일을 확인해야 할 때 휴대폰은 유용하다.

LGT는 휴대폰으로 본인이 직접 PC에 접속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찾아보고 관리할 수 있는 MyP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F의 '메일 알람 PLUS'는 꼭 확인해야 하는 메일을 멀티메일(MMS)로 전환해 휴대폰으로 전송해 준다.

가려운데 긁으면 왜 시원할까?

불쾌감 인식 뇌 활동 일시 중단

가려운 데를 긁으면 불쾌감을 인식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심하게 긁을 때 생기는 통증이 가려움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추정해왔다.

미국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 연구진은 13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5분 동안 30초 간격으로 부드러운 솔로 종이를 긁는 실험을 하면서 이들의 두뇌활동을 기능성 자기공명영상(MRI) 장치로 촬영했다. 그 결과 다리를 긁을 때는 통증에 따른 불쾌감 및 기억과 관련된 대뇌 전두피질과 후두피질의 활동이 줄어들고 심하게 긁을수록 이 영역의 활동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긁는 행동이 가려움과 관련된 감정적 요인을 억눌러 편안한 느낌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번 긁으면 자꾸 긁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긁으면 통증 중추인 2차 체감각피질의 활동이 증가하는데 이 영역은 충동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곳이어서 자꾸만 긁게 된다는 것이다.

과기부, 2008년 지방 테마과학관 지원 계획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지자체, 사업명, 분야, 지원액. Lists support for various science museums across different regions.

고흥 우주과학관·목포 바다 과학체험관 등 지방 테마과학관에 국비 40억 지원

고흥 천문우주과학관 등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에 올해 국비 4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방테마과학관의 2008년도 건립지원 대상사업으로 12개 과학관을 선정, 총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학관은 고흥 천문우주과학관, 목포 어린이바다과학체험관, 정읍 첨단과학관 등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6곳과 고향 신바람에너지과학관,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등 신규로 선정된 6곳이다. 그 중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테마과학관은 우주, 에너지, 해양, 생태, 전자 등의 분야로 지자체가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건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192억원을 투입해 장흥 정남천천문과학관, 곡성 삼강진천문대, 순천 시민천문과학관 등 총 25개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을 지원했다. 장흥, 곡성 과학관 등 6곳은 완공돼 운영되고 있고 순천 과학관 등 19곳은 건립 중이다. 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과학관 120개를 건립해 지방 과학문화 확산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금보부동산건설링
토지매매
건물매매
금매 고시원매매
주유소 및 부지매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빌딩
상
병원·학원·수퍼·식당 기타
모텔·호텔매매·사우나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수완택지지구 200평
분양·임대
침단중양메디칼센터 (2008년 2월 준공)
건물 28억

한일지도판매(주)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